

2019학년도 제 3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9년 1월 23일(금) 14:00~17:3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종진 (위원장)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원지환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이관엽 (등심위 TFT 위원)
 최효영 (대학원 총학생회장)
- 불참위원 : 김정미 (주간MBA 원우회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배 석 :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이근화 (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1. 2019학년도 본예산 관련 심사 · 의결 진행

- 배석한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이 아래와 같이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 2019학년도 본예산,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함.

- 아 래 -

① 2018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 (교비회계 : 등록금 + 비등록금 회계)(단위: 백만)

구분	본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A+B)	본예산 대비 증감률
교비회계	177,967	10,477	188,443	5.89%

② 2019학년도 본예산 (단위: 백만)

구분	등록금	비등록금	계
세입	103,582	74,050	176,878
세출	103,582	74,050	176,878

* 세입 : 등록금, 수강료,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부채, 기본금, 전기이월자금

* 세출 :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전출금, 예비비, 자산/부채

③ 잉여금 처리 원칙

가. 잉여금의 정의

-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

- 등록금회계의 전기이월자금에 한함.

나. 잉여금의 처리 원칙(안)

-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이월의 경우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 기타이월의 경우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
- 일부 장학금 등에 대해서 이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등록금회계의 예산 이월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여, 이월금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위원 발언 및 질의응답

이관엽 (등심위 TFT 위원)

학부 편제 정원이 66명 감소되었는데 입학생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재학생이 학기 중 감소된 것인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2년 전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계속 반영되고 있으며 내후년까지 계속 될 것임.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학처장 회의에서 편제정원 감소에 따른 등록금 감소와 국책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정책적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CK-II 사업을 유치할 때 가산점을 얻기 위해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음.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우리 대학은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인 것이고 언젠가는 교육부 시책에 의해 정원이 감축되었어야 했음.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수혜가 돌아갔다는 점도 있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지난 번 정원 감축 때에는 학생들에게 미리 전달된 것이 없었는데, 추후 정원 변동이 생길 시에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먼저 공지되기를 바람.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앞으로 정원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종진 (위원장)

2차 구조개혁평가 때 서강대가 6위를 기록하였는데 자발적으로 정원을 조정했었음. 이를 통해 국책사업에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이면에는 정원 조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2016년 말에 2021년까지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완납하기로 논의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정전입금은 12억 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교육부에 법정부담금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법인의 재정을 검토하게 되는데, 교육부 산출근거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전출하고 있음. 일전에 법정전입금을 점차 증가시킨다는 학생들과의 논의가 있었고, 건물로 인한 수입, 기부금 수입 등으로 계속 증가된 법정전입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종진 (위원장)

법인책무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법정부담금으로 평가하는 방식임. 약 30억 원에 대해서 100%를 전부 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대학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함. 둘째는 법인의 수입 대비 법정전입금 규모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법인은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법인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주기 바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그 논의가 있는 후로 3년정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완납되지는 않았음.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완납이 아니라 법정부담금을 매년 2억 씩은 늘려나가겠다는 논의였던 것으로 기억함. 5년 동안 완납이 되기는 어려움.

이종진 (위원장)

법정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임교원 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법인에서는 퇴임교원의 70% 수준으로 뽑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 경우 학생들이 받는 피해와 교육의 질 문제가 우려되었음. 그래서 현재는 전임교원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임교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내야하는 법정부담금도 증가하는 상황임.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앞으로 인건비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법정부담금도 증가할 것임. 전임교원 확보율도 교육의 질이나 평가 지표를 위해 높아지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법인에서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위해 전입금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교육의 질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가 많음. 총학생회에서 했던 사업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사업 중 하나도 교육권과 관련하여 교무처와 논의했던 사업이었음. 교수 수의 부족이나 강의실 대형화, 외국인 학생 증가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 등이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 저하의 예임. 학교에서 예산은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이 점점 후퇴한다고 느끼는 상황임. 획기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한다는 메시지를 학교 측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바람.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본부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 본부에서도 교원을 충원하려는 노력이 있고,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도 국제학생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방안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외국인 장학금 등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학생에게 드는 비용을 일반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음. 이렇듯 본부와 법인 차원에서 앞으로도 교육권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임.

이종진 (위원장)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 두 가지 큰 틀을 세웠음. 첫째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용은 수입이 줄더라도 유지하겠다는 것과 둘째는 전임교원 충원임. 재단 이사장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함을 밝혔고, 학교의 자원을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이 점을 알려주기 바람.

이관엽 (등심위 TFT 위원)

학제 개편이 된 지식융합미디어학부에 대해 법인이나 동문회 측에서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지

이종진 (위원장)

본부 차원에서는 신설 융합 학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함. 추가되는 실험실습비와 기자재 확보 요청을 받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임.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지식융합미디어학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타 학부에서도 융합 전공 신설 등과 같은 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아 이사회에서도 지원의 의지가 있음. 이사회에서는 학부에 전임교원을 배정할 때 지식융합미디어학부에 많은 배려를 할 계획임. 한정된 자원을 특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사회에서 생각하고 있음.

이종진 (위원장)

신설학부는 타 학부에 비해 자율기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3개년 간의 전출금액 추이가 어떠한지.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매년 12억 원 정도를 유지했으며 예전에 내지 못한 부담금을 매년 1억 씩 더 전출하였음. 교육부에서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던 금액을 경상비 전출로 계속 전출하고 있음.

이종진 (위원장)

14,15년도에 법정전입금이 많이 줄었던 적이 있는데, 외부 사업의 여파가 원인이었음. 하지만 지금은 매년 전입금 규모가 유지되고 있음.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그 때부터 법정전입금을 지속적으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토마스 모어관 신설이나 현리인성교육원에도 법인의 재원이 많이 투자되었음. 단순히 법정부담금 규모만으로 법인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현리인성교육원에서 대관 등으로 나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이종진 (위원장)

아직 공사가 계속 되고 있어 수입이 나오지는 않음. 오히려 공사비와 건물 관리 운영비 등이 계속 투입되고 있음. 대관 사업을 2월부터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고, 대관을 위해서는 인력이 더 투자되어야 함. 정상적인 현리인성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예수회에는 인력을, 법인에는 운영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현리인성교육원 운영비는 지출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결산 때 수지차액 중 일부를 현리인성교육원기금으로 적립하여 차년도 운영비로 충당하려고 함.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아직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을 전부 미리 책정하기보다는 1년 동안 운영 상황이나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본 후에 내년에는 해당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학생들이 다른 대관시설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히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람.

이종진 (위원장)

17년도에 비해 18년도 학교 적립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17년도는 결산금액이고 18년도는 예산금액으로 로올라 프로젝트 등을 예산에 반영했던 예상치를 적어놓은 것임. 18년도 결산이 나오면 정확한 적립금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임.

이관엽 (등심위 TFT 위원)

건축기금 항목에서 로올라 프로젝트 외에 건물 노후 수리비 등이 잡혀있는 항목은 없는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어느 사업에 얼마가 투입될 것인지가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 발전홍보팀에서 기부금 수입으로 기대되는 예상치를 예산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수입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부금에 특정하게 잡힌 세부 항목은 없음.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예산 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 발전홍보팀에서 그만큼 기부금을 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임.

이종진 (위원장)

올해에 기부금 모집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 관계 보직자들이 전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작년보다는 많은 기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동문과의 관계에 대해 동문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있었기 때문에 동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행부도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기부금 관련 성과도 있을 것임.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법인과 집행부가 따로 모금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서 법인도 모금활동에 같이 참여하기로 하였음. 동문과의 관계 문제는 남양주캠퍼스 문제 등 오해가 있는 부분을 동문들과 풀고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임.

이종진 (위원장)

남양주 프로젝트와 관련된 백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백서 발간 준비는 다 되었으나 남양주시와의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있음. 남양주시에서도 프로젝트 관련하여 소송 관련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으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음. 백서에는 남양주시와 대학 측 각각의 유리한 점 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기재되어 있는데, 양측이 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공개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법률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음.

이관엽 (등심위 TFT 위원)

기금 중 축제나 학생문화사업에 사용 가능한 기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종진 (위원장)

총장배공연대회 등에 쓰는 축제기금이 있음. 작년에 공연대회 이후 자금이 남았고 올해에는 6천만원 정도 책정되었음. 총장배공연대회는 인문교육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교비가 투입됨. 대회가 매년 계속된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지만 첫해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해서 쓰고 남은 자금이 있었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학생 축제 무대에 2천만원 가량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총장배공연대회에 6천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상금과 활동비 지출도 있었지만 무대구입비가 비중이 크다고 들었는데 무대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비슷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 그렇다면 작년에 남은 예산에 올해 다시 추가로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작년에 남은 금액은 올해 또 사용할 수 있음.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학생들이 주가 되는 축제의 무대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총장배공연대회의 경우 무대를 실내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차라리 무대비용을 줄이고 학생들의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이 낫다고 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그렇다면 무대구입비만큼 비용이 감소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매년 설치 및 철거를 해야할 수 있음.

이종진 (위원장)

2회째가 되는 공연대회이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면 절감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총장배 공연대회 지원금이 준비하는 학생들의 식비로 많이 지출되는 것을 보며 지원금의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학생들은 또한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축제에 비용을 쓰기보다는 다른 쪽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도 많았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을 기대했으나 논의 전에 총장배공연대회 준비가 시작되었고 이미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음. 그렇다면 예산적으로라도 최대한 절감하여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봄.

이종진 (위원장)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의견에는 이견이 있겠지만 더 긴급한 사안이 있지 않느냐는 학생측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공연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음. 하지만 우리 학교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실현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며 전통적으로 예수회 대학의 주요한 교육 중 하나임. 참여했던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끼를 잘 발휘하는 모습이 좋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측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겠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다른 학내 현안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취지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학생회에서는 학생축제에 1~2천만원이 지원이 더 되더라도 어차피 매년 학생회가 노력하여 큰 규모의 축제기금을 조달하는 입장임. 그 점에서 축제보다도 다른 학생 현안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배정하여 주기 바람.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축제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므로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학생 측이 의견을 주기 바람. 총장배공연대회의 취지에도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예산 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음. 원래는 총장님이 봄에 총장배 경연대회, 가을에 총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셨음. 예산 조정에 대해서는 잘 논의가 되면 좋을 것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총장배경연대회도 기부금이 재원이 되면 좋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음. 재원이 기부금이 된다면 공연대회와 관련된 논란도 줄어들 것이고 취지를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이종진 (위원장)

학교에서 각종 기금을 모금할 때 학생축제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도록 하겠음. 모금 때 또 학생들의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것임.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학생 축제에 무대 사용을 같이 하는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점도 고려하기 바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교원이나 공간에 대한 학생 측의 논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F관이 연구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학생들이 출입이 되지 않음. F관 공간 사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이종진 (위원장)

F관은 윤○○ 교수님의 광합성연구센터 연구기간이 올해로 끝날 것임. 그 이후에 본부에서 어떻게 공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함. 추후 공간담당 교직원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18년도 추경예산 내역 중 연구학생경비가 많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국고사업비가 처음 배정이 되었을 때 연구학생경비에 책정하였다가 실질적인 국고사업 예산 계획이 나오면 연구학생경비의 금액을 이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이 때문에 연구학생경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연구학생경비가 감소한 것은 아님.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학혁신사업은 이미 사업계획을 받아 국고사업비를 적정 예산 항목에 각각 배정하였으므로 올해부터는 18년도 추경예산 내역처럼 연구학생경비가 많이 감소하지 않을 것임.

이종진 (위원장)

대학혁신사업의 국고교부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예산을 편성하였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학생활동과 관련한 금액 중 하비에르 장학금을 임원들이 수령하는데, 각 학부 학생회 구성의 난항으로 하비에르 장학금 미지급금이 존재함. 미지급된 장학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하비에르 장학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잔여 예산은 다른 장학금으로 지출됨.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주로 다산장학금으로 자금을 돌려 장학금을 지급함. 대외적인 지표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학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장학금을 회계연도 내에 소진해야 함.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국가장학금 제2유형 계획서를 제출할 때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을 정하게 됨. 이 장학금 수혜액에 학생 수를 곱한 금액만큼은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장학금 예산은 2월에 다른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우리 대학은 현재 6분위까지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모간담회에서 8분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총장님 재임기간 동안의 목표이나 30억원 이상 자금이 필요하고 기부금으로 충당하려고 함. 현재까지는 6분위까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음.

이관엽 (등심위 TFT 위원)

기자재 보수 및 유지보수 관련하여 기금이나 적립금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금이 있는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지정사업 내역 중 기자재 보수 항목도 있고, 기숙사 보일러 교체 등 유지보수 관련 사업들이 있음. 또한 학교회계 결산 후 수지차액이 남았을 시에 기금 적립을 했다가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예정임.

이종진 (위원장)

전면적으로 유지보수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유지보수를 해나갈 예정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국고사업 중 CORE사업이 종료되어 빠진 국고사업비를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채우는 것인지.

이종진 (위원장)

CORE, CK-II, ACE 세 가지 국고사업이 통합되어 국고사업비가 축소되었으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부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그러나 기존 사업의 총 금액보다는 적게 교부받을 가능성이 높음.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종료되는 국고사업 내용 중 꼭 필요한 내용을 추려 지정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각종 기자재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항목도 지정사업에 추가하였음.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국고사업비가 예상보다 좀 더 늘어나더라도 국고사업을 추진할 계약직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을 따졌을 때, 예산 상 남는 금액은 없다고 보아야 함.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강사법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여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학교에서 판단하고 있는지.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강사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올해에 당면한 과제임.

이종진 (위원장)

대학마다 강사법 때문에 강사들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임.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강사 해고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연관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음.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국고사업비를 교부받더라도 코어사업 후속 평가, 강사법, 도서관 DB 확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어려움이 많음. 처음부터 국고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들에 비해 특히 우리 대학은 국고사업비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임.

이관엽 (등심위 TFT 위원)

자연계열 등록금의 경우 모든 학부가 동일한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수학과는 실습비를 거의 쓰지 않고, 화학과는 실험은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험실습비는 적게 쓰며, 생명과학과는 실습비 지출이 매우 많음. 이 때문에 등록금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학생들 사이에서 계속 있는 상황임.

이종진 (위원장)

실험실습비를 따로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학부별로 따로 등록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대형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대학의 규모에서는 차등 등록금제는 예산 편성 방식이나 부대 비용 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그럼에도 수학과와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실험실습 과목이 아예 없으며 실험실습비가 투입될만한 경우도 랩실 1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학과 학생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됨. 이 점에서 수학과에 한해서라도 일정부분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이관엽 (등심위 TFT 위원)

등록금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따로 이를 위한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논의드리고 싶음. 좀 더 등록금을 형평성있게 조정할 수 있기 위해 본부와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람.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이 경우에 수학과 등록금을 하향 조정한다면 교육부 정책에 따라 등록금을 올리지는 못하고 내리는 상황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등록금을 내리면 학교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실험실습비라는 명목이 따로 없고 전체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등록금 인상 제한이 없었던 시기에는 공간, 실험실습비, 전임교원 수, 기자재 등의 명목으로 인문, 자연, 공학계열의 등록금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현재는 등록금도 매년 동결이고, 실험실습비도 따로 받지 말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임. 실험실습비와 관련한 또다른 문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과학, 공학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실험실습비를 내지 않지만 그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를 부과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등록금을 내리는 것만 가능할 뿐 올리지 못하는 구조적 상황에서 등록금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오히려 이런 상황은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수학과 학생들이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음.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등록금환원을 측면에서 논의해 보면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즉, 수학과 학생들은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연과학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덜 수혜받고 있을 뿐임.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월가를 바탕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체계인 것은 맞지만, 실험실습비는 수학과 등록금의 일부 요소인 점을 이해해야 함. 각 학부, 학과마다 필요한 교원 수, 실험실, 실습실, 강의실, 제반 시설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등록금에 고려되기 때문에 단지 실험실습비 금액만을 갖고 등록금의 조정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또한 등록금 환원의 측면에서는 이미 수학과 학생들도 등록금보다는 더 수혜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강범석 (학부 총학생회장)

실험실습비의 정확한 금액만큼을 등록금에서 빼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본부에서 알아주시기 바라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임.

이종진 (위원장)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각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 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에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좋은 안이라고 봄. 따로 회의를 만들기보다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핵심적인 기구로서 연중에도 회의를 열어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안건을 발의한다면 좋은 논의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임.

3. 결정사항

-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 2019학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 잉여금 처리 원칙(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2019. 1. 30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이종진 기획처장

(교직원 위원)

(학생위원)

(외부전문가)

김달원
법인 사무팀장

이관열
등록증심의위원회 TFT 위원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최호연
대학원 총학생회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